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트럼프 랠리 피로감, 러셀2000 1.8% 하락

Key Takeaways

- 주요 지수 모두 하락, 러셀2000 지수 -1.8% 가장 큰 하락
- 트럼프 랠리 후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증시 압박
- 메스터 전 총재 "내년 금리 인하 횟수 줄 것"

Summary

미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된 '트럼프 랠리'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 일제히 하락 마감함.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86% 떨어진 43,910.98로, S&P500 지수는 0.29% 하락한 5,983.99로 마감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19,281.40으로 0.09% 하락함.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1.8%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음.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상황임.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언급해 이목을 끌었음. 트럼프 당선 후 주가가 급등했던 테슬라는 6.1% 하락하여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음.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관세 인상 등의 정책이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금리와 달러 평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는 보험세임. 투자자들은 13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14일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에 주목하고 있음. 이러한 발표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다우 -0.86%, 나스닥 -0.09%, S&P500 -0.29%, 러셀2000 -1.80%)

특징종목

엔비디아(+2.1%)는 AI 수요 증가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며 주가가 상승함. 슈퍼마이크로의 부정적 실적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주목하였음. 허니웰(+3.9%)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지분 인수와 기업 분할 제안으로 주가 상승, 이는 기업 가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함. 아마존(+1.0%)은 트럼프 재선으로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투자자 관심이 증가했음. 타이슨 푸드(+6.6%)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닭고기와 소고기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에 기여하면서 주가 상승함. 아스트라제네카(+0.6%)는 3분기 실적 호조로 연간 전망을 상향하면서 미국 투자 확대 계획이 긍정적으로 작용함. 반면, 홈디포(-1.3%)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시장 전반의 하락세로 인해 주가 하락했으며, 차익 실현 매물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테슬라(-6.1%)는 트럼프 재선으로 전기차 보조금 축소 우려가 커지며 주가가 하락하였음. 보잉(-2.5%)은 주요 공급업체와의 재무 지원 협의 소식으로 인해 주가 하락,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됨. 각 기업의 주가 변동은 현재 글로벌 시장의 정치 및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20분, KST 기준

최근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국채와 외환시장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이 발생함.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43으로 상승, 이는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미국 달러는 105.93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고, 이는 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반영임. 특히 유로/달러 환율은 1.06으로 하락하였음. 상품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하루 동안 0.02% 상승한 68.05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주간으로는 하락세를 보여줌. 반면 금은 0.97% 하락하며 안전자산 수요가 약세를 보였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경제 정책 변화와 물가 지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평가됨.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S&P500 (SPY)	-0.3	배당성장 (SCHD)	-0.9
S&P500 동일가중 (RSP)	-0.8	미 국채 (AGG)	-0.6
나스닥100 (QQQ)	-0.2	미 장기 국채3X (TMF)	-4.6
다우 (DIA)	-0.8	매그니피센트 7 (MAGS)	-0.3
대형성장 (MGK)	+0.1	인공지능 (AIQ)	-0.5
소형주 (IWM)	-1.8	메타버스 (METV)	-0.6
인도 (INDA)	-1.3	클라우드 (CLOU)	+1.5
중국 (FXI)	-3.7	2차 전지 (LIT)	+0.5
반도체 (SOXX)	-1.1	로봇 (BOTZ)	+0.3
부동산/리츠 (VNQ)	-1.4	방위산업 (SHLD)	-0.8
헬스케어 (XLV)	-1.4	스마트 그리드 (GRID)	-2.3
항공 (JETS)	-1.2	미국 인프라 (PAVE)	-1.5
소프트웨어 (IGV)	+0.5	친환경 (ICLN)	-2.6
바이오테크 (XBI)	-2.9	우라늄 (URA)	+0.4

US Sector Index

S&P 500	증가	D-1(%)	D-5(%)	D-20(%)
커뮤니케이션	335.1	+0.5	+4.7	+6.5
IT	4,604.4	+0.5	+3.6	+2.5
필수소비재	867.6	+0.1	-0.2	-0.9
금융	826.0	-0.3	+6.4	+6.8
에너지	717.5	-0.5	+3.6	+0.5
산업재	1,199.3	-0.9	+4.3	+2.5
경기소비재	1,752.6	-1.1	+7.0	+11.2
유틸리티	398.1	-1.1	+0.1	-1.1
부동산	269.4	-1.3	-1.9	-1.1
헬스케어	1,715.0	-1.3	-0.5	-4.5
소재	581.2	-1.6	-1.3	-4.0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및 지수	증가	D-1(%)	D-5(%)
WTI	68.1	+0.0	-5.5	달러인덱스	105.93	+0.4	+2.4
Brent	71.9	-0.0	-4.9	유로/달러	1.0624	-0.3	-2.8
미국 천연가스	2.9	+0.1	+9.4	달러/엔	154.60	+0.6	+2.0
석탄	122.4	+0.1	+3.2	달러/역외위안	7.2414	+0.2	+2.0
금	2,606.3	-0.5	-5.2	달러/원(NDF)	1,406.6	+0.5	+2.2
은	30.8	-0.8	-3.6	비트코인	88,952	+1.1	+17.1
구리	9,144.5	-2.0	-6.1	이더리움	3,272	-1.7	+13.1
알루미늄	2,946.5	-1.1	-5.1	나스닥 크립토	4,457	-0.6	+29.2
밀	552.3	-2.1	-3.3	CRB 상품 (11/11)	333.37	-0.9	-1.3
대두	1,010.5	-1.0	+1.0	LME 금속 (11/11)	4,074	-1.2	-3.6
소고기	184.4	+0.4	-0.2	발틱 건화물 운임	1,558	+4.9	+14.5
돼지고기	82.4	+0.8	+1.6	컨테이너 운임(주간)	3,444	-45	-2,29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주요 스프레드	증가(%)	D-1(bp)	D-5(bp)
미국	4.42	+11.5	+14.9	미 국채 10-2년	8.2	+3.3	-0.8
한국	3.02	-2.0	-6.0	미-한 국채 10년	140.9	+13.9	+11.4
일본	1.02	+1.2	+7.4	미-일 국채 10년	340.8	+10.7	-4.5
독일	2.36	+3.5	-6.3	프-독 국채 10년	76.1	+0.010	-0.00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컨테이너 운임(주간)은 1M, 3M 대비 등락폭 기준, 괄호 안은 기준 날짜.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금융투자분석사가 공표한 자료입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